

2019년 9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김수정 위원

◆ <뉴스데스크>, 추석 명절 보도주제의 다양성과 시의성 아쉬움

명절 관련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도로 교통량과 사건사고에 치중했던 부분이 아쉬웠다. 추석 명절 준비가 전 주 주말에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절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주말에 맞춰 미리 제공하고, 명절의 변화하는 풍경이나 명절을 앞둔 다양한 시민의 모습을 보도해 민족 명절의 감정을 공유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다.

민족 명절을 계기로 뉴스가 시청자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넓히고 그동안 미처 신경을 크게 쓰지 못한 문화/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적었다. 뉴스의 몇몇 보도의 경우에는 명절 시의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도 해서 다음 명절 시기의 뉴스 준비에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세심함이 있기를 주문한다.

9월11일(수) 추석 명절 관련 보도는 귀성객과 여행이동이 급증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기차역이 보도됐다. 귀성길 헬기보도는 고속도로 정체상황을 실감나게 볼 수 있게 해서 시선을 끌었다. 인천공항의 분위기는 연휴를 계기로 해외여행에 나서는 가족들의 설레는 모습과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을 위한 공항의 준비상황이 보도됐다. 서울역에서는 귀성길 혼잡을 보여줌과 동시에 승무원들이 연휴과업에 들어간 내용을 보도해 주었다. 이 같이 하늘로, 도로로, 철도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집으로 이동하고 있거나 집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식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구성을 잘 보여준 것 같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9월12일(목)에는 고속도로 정체상황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600km늘어섰던 차량들...내일은 622만 대 나온다'가 보도됐고, 안전운전과 야간운전에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설렘...휴게소 안 들르면 명절 아니죠' 보도가 있었다. 연휴가 시작되어서야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시간과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

추석인 9월13일(금)에는 '꽉 막힌 추석...곳곳에 거리 농성'에서 민족 명절 중에도 거리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있다가 보도됐다. 이어서 '속도 줄이지 못 해...귀경길 고속도로 6중 추돌'로 차량사고가 보도됐다. 다소 연결성이 떨어지고 성묘 중인 추모공원이 화면에 비춰졌지만 추석과 연관한 분위기를 느끼기는 다소 부족했다. 오히려 명절을 보내는 이웃의 다양한 모습을 보도해 주었다더라면 정서적 공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 또한 거리 농성 중인 노동자 이야기는 도로교통 정체 상황과 별개

의 꼭지로 다루거나 사고 보도와 연관성이 낮은 순서에 배치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9월14일(토)은 추석연휴 하루를 남기고 ‘하루 종일 꽉 막힌 상행선...새벽에야 정체 풀려’로 귀경차량 혼잡정도를 보도했다. 15일(일)에는 ‘연휴 마지막 날...밤 11시쯤 고속도로 정체 해소’가 보도됐다.

추석 명절과 관련해 <뉴스데스크>는 교통 혼잡에 집중한 느낌이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민족 명절이기에 누구에게나 교통상황은 중요한 보도내용이다. 하지만 명절의 의미와 분위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대체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9월10일(화) “와 연휴다”하다 ‘황’...연휴 전날 사고 최다’와 같은 보도에서는 교통 사고가 연휴전날이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어서 안전운전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어 시의가 잘 맞았다. 9월12일에는 [바로간다] ‘계단 서너 칸을 후다닥...시간당 24개 배송 전투’, ‘조상님 차례는 커녕...“컨테이너서 겨울 날까 걱정”을 통해 추석 명절이 기쁜 것만은 아닌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가 보도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이지만 일터에서 추석을 보내야 하는 시민이 있는데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추석에 혼자 추석을 보내는 혼추족,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동포, 이주민, 소외 이웃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 명절 시기마다 조금씩 바뀌어가는 문화와 변화들도 뉴스로 다뤄지면 좋았겠다. 한국의 대표 명절인 추석인데 가족이 모두 모여 이야기 나눌 의제가 정치문제나 교통상황을 벗어나 가족의, 마을의, 이웃의, 공동체인 우리의 문제를 둘러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었다.

13일 ‘후지 사과신고 배?...“이른 추석엔 국산 품종이 제격”과 같이 추석 명절 준비 기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정보는 오히려 일찍 보도를 해야 했다. 명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전 주 주말인 점을 고려해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의미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보는 좀 더 이른 시기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

2019년 9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박 성 현 위원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61회, 63회 일부)

1) 61회(8/19) 중 ‘목숨에도 등급 매긴 죽음의 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8월19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실태와 발전사들의 행태를 보도해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김용균 씨가 희생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가 현장 여건에 맞지 않은 형식적 개선만 취함으로써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커진 상황을 잘 취재해 보여주었다. 발전사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값싼 저열량탄을 사용함으로써 원가를 절약하는 대신 작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안전사고를 증가시켰다는 점, 심지어 재해 사망 시 발전사 직원(원청)이나 도급인(하청직원)이냐에 따라 감점계수를 차등화해 부서별 평가에 적용했다는 점, 게다가 발전사의 하청업체들 역시 발전사가 계약한 인건비의 절반 가까이를 빼돌려 왔다는 사실을 폭로해 시청자들에게 상세한 정보과 진실을 전달했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명감으로 꼼꼼히 취재하고 국민에게 알린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이번 보도는 참된 저널리즘의 모습을 특히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이런 노력이, 특조위의 권고대로,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업무는 발전5사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경상, 정비 업무는 재공영화”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2) 63회(9/2) 중 “‘논두렁 시계’의 배후 국정원? 검찰?”

조국 관련 검찰수사의 정치성 공방을 고려할 때—이와 유추적 맥락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이른바 ‘논두렁 시계’ 과문의 배후에 대한 보도는 방송 시점상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미제로 남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언론의 본분을 보여 준 취재이다.

그러나 끈질긴 추적으로 미국에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찾아내어 인터뷰를 한 취재기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서 끝난 듯한 느낌이 있다. 인터뷰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제공이나 의혹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보니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한 인

상을 남겼다. 아직까지는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권력행사 시스템, 구조적인 폐해와 개혁방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었어도 좋았을 것이다.

◆ <뉴스데스크>(9/1~14)

1) 조국 관련 보도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보다는 의혹의 확대재생산에만 몰두할 때 <뉴스데스크>도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던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타 방송사들이 (아마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뉴스들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검증과 확인에 입각해 취재한 내용을 전하려는 노력이 특히 돋보인다.

* 검증과 확인에 입각한 취재의 예

- 탐사기획팀이 미성년자 논문을 두 달간 추적, 확인해 내보낸 보도(9/11)

2) 후쿠시마 방사능 집중 취재(9/2~4)

오염토의 사용, 농·수산물 식재료, 원전 오염 제거에 투입된 베트남 실습생들 등, 여러 문제들을 연속보도로 다루어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끈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주민들의 인터뷰를 쪼개어 여러 날에 걸쳐 쓰다 보니 동일한 인물이 매일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잠시 헷갈리기도 하고 오늘 본 뉴스가 어제 본 뉴스 같은 기시감을 느끼게도 된다. 예를 들어, 이타테 주민 후지이(여성)씨의 인터뷰는 9월2일, 3일, 4일에 다 들어가 있고, 이타테 목장 주인 호소카와(남성)씨의 인터뷰는 9월2일, 4일에 포함되어 있다. 1~2명이라도 다른 주민들의 인터뷰가 더 있었다면 인터뷰 인물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물론 인터뷰 내용은 다르지만)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사소하지만 눈에 띄는 또 한 가지 사항은 9월2일자 보도에서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30km 떨어진 이타테 마을의 한 목장입니다. < ... > (호소카와/이타테 인터뷰) < ... >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 ... > (후지이/이타테 주민 인터뷰) < ... >.” 이 경우, 이타테 마을을 방문한 후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갔는데, 인터뷰는 다시 “이타테 주민”으로 나와 시청자는 혼란스럽게 된다. 타 방송사 뉴스에서 “실험장은 원전에서 30km 떨어진 이타테 마을의 나가토로 지구입니다.”라는 멘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타테가 여러 지구로 나뉘어 있다고 추측되는데, 기자의 리포트 내용과 자막이 엇갈려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명의 세부사항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3) '정치적 참견 시점'

- 보도국 혹은 앵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흥미로운 코너인데, '참견'이라는 형식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공정성·객관성을 깨는 주관적인 목소리를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청자들이 지적하는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사실 확인과 검증에 근거한 객관성·중립성 위에 <뉴스데스크>의 개성이 담긴 코너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현재로서는 '정치적 참견 시점'이나 앵커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 그것이 부분적으로 가능해 보인다(최근에는 외부인 인터뷰뿐만 아니라 기자 인터뷰도 드물어진 경향이다).

- 박영희 기자에서 김지경 기자로 바뀌면서 전하는 소식이 두 가지에서 한 가지로 줄었는데, 앵커가 "첫 번째 소식 볼까요?"라고 시작해 시청자는 심리적으로 다음 소식을 기다리게 된다(9월3일, 4일). 최근에는 이 표현이 바뀌어 다행이다(개인적으로, 한 가지보다 두 가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 앵커가 문어체의 딱딱함 대신 구어체의 친근함을 위해 "~했어요" "~했을 거 같아요('같아요' 대신 사용)", "~삼았어요", "~있어요"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이 자연스럽기보다 어색하게 들릴 때가 많다. 또한, 기자의 보도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앵커의 멘트가 거의 한 줄짜리 단답형으로 대본에 쓰인 것을 그대로 읽는 분위기여서 생동감이 떨어지고 흥미가 반감된다.

앵커가 수시로 뉴스대본을 보는 모습은 시선이나 손동작 등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는 뉴스에 집중하는 전문가적 분위기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산만한 느낌을 자아내는 부정적 효과로 귀결될 수 있다. 앵커가 단순히 대본을 읽어서(외워서) 전하는 인상이 강하고 순발력 있는 대응(즉석) 멘트를 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생동감 약화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촌철살인의 한줄 비평이나 코멘트가 앵커를 통해 전달되고 <뉴스데스크>의 개성을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4)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뉴스데스크>

앞서 MBC 보도국의 목소리, <뉴스데스크>의 개성에 대해 말했지만, 사실 또 다른 의미에서 <뉴스데스크>의 개성, 고유한 색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있음을 느끼게 된다. 보도국 인권사회팀의 '바로 간다'(추석 배송, '전투' 같은 현장, 9월 12일)뿐만 아니라, '소수의견'(국가보훈처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 9월1일)과 '법이 없다'에서 다루는 이슈들을 보면 <뉴스데스크>의 이러한 장점/강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

* '법이 없다' - 못 받은 월급 '1조 6천억 원'(9월7일), 하청업체(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원청 대기업(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9월1일), 폭염 속 철근 더미 아래 널빤지 위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8월18일)

<뉴스데스크>가 앞으로도 이 방향을 자신의 색 또는 정체성으로 삼길 기대하며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5) 국정원 개혁 관련 연속 보도(9/12~14)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단, 특별히 기획된 보도치고는 할당된 시간이 좀 짧았다는 점이 아쉽다(1회에 비해 2, 3회는 30초가량 더 짧다). 짧은 보도 시간 때문인지 새롭게 보충되거나 심층적인 취재내용이 있기보다는 기존에 보도된 사건을 예시로 단순히 반복 설명하고 끝난 듯한 인상을 남겼다(각 회의 내용 구성상 1회의 집단 탈북 사건보다 2회의 프락치 사건이 그러하다).

6) 기타 사항, 제안 및 질문

- 매우 사소하지만 9월2일자 기자 리포트 중 “오후 2시 30분 백팩을 멘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의 경우, 뉴스임을 감안해 ‘백팩’을 ‘가방’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겠다(게다가, 당시 조국 후보자가 한쪽 어깨에 멘 가방이 정확히 백팩인지 화면상으로는 알기 어려웠음.).

- 주말뉴스가 새로운 앵커들의 자연스러운 진행과 함께(물론 기존 코너인 ‘로드맨’, ‘소수 의견’의 일조도 있지만) 더욱 생동감 있고 흥미로워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 검찰개혁과 더불어 국민의 또 다른 숙원인 언론개혁의 문제를 다루는 기획이 <뉴스데스크>나 다른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면 언론 내부로부터의 성찰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일 것이다. 국회에서 먼지를 쓰고 계류 중인 ‘이용마 법’, 방송법 개정안을 ‘법이 없다’에서 다룰 수도 있겠고, 아예 지속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논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타 방송사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는 방식으로—미래에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뉴스데스크>가 와이드로 개편되어 방송시간이 늘었지만 초기보다는 다시 약간 짧아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스포츠 뉴스와 날씨를 제외하면 본 뉴스 시간이 생각만큼 길지는 않다(물론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뉴스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고를 기울여야 하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준)고정 코너들이 며칠에 한 번씩 번갈아 운용되다보니 시간대 별로 구분되는 코너들을 시청자가 기다리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정치적 참견 시점’은 예외인데, 평일 뉴스에서 거의 매일 배치된 덕분에 시청자들의 뇌리에 꽂히고 시청자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인기도 얻었다. 물론 초기 박영희 기자의 공도 컸다).

와이드 뉴스지만 1·2부로 구분하기에는 길이·내용상 애매하고, ‘쉬어가는 페이지’ 내지 ‘숨 돌리는 시간’(인터뷰, ‘정참시’ 같은 코너)이 매일 배치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 변동이 많다보니 어떤 시청자들에게는 단지 뉴스 시간이 바뀌고 예전처럼 뉴스 꼭지들을 열거하는 것이 좀 더 길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뉴스데스크>가 방송될 때 포털 사이트의 라이브 특을 보면 새로운 시청자들이 영입되고 시청자 층이 점차 확장되는 추세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뉴스 시작을 8시로 해달라거나 뉴스 시간을 더 길게 해달라는 요청도 간간이 보여 이에 대한 보도국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2019년 9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오 수 원 위원

◆ <100분토론>

- '조국임명 강행, 정국후폭풍은?' 842회[9/10]

9월10일 방송된 <100분토론> '조국임명 강행, 정국후폭풍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 처음 이 주제로 <100분토론>을 진행한다는 예고를 보고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시청하였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을 평가하자면 '그러면 그렇지'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 들어왔던 얘기 보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었고 구태의연한 편 가르기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는 패널로 참여한 사람들의 이력만 보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다. 참여한 패널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 의원이자. 즉, 전직 국회의원이자 여당 편 2명, 야당 편 2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한 것이다. 이들은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취해 온 입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어대는 것에 그칠 뿐 시청자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주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유연성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최민희 패널의 경우는 이런 토론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새롭게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조국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로 확정한 자이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자라고 여겨진다.

<100분토론>에서 '조국임명 강행, 정국후폭풍은?'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조국장관에 대하여 수많은 의혹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그녀는 모두발언에서 조국후보자에 대하여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졌음에도 의혹 위에 의혹을 쌓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발언과 같이 과연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졌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 토론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얘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송늪을 찾는 격이다 라고 얘기하였는데 이 또한 지나친 발언이고,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마다 어색하다는 말도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최민희 패널은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도 모르고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적 수준으로 토론에 참여한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행사죄로 위 조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

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창피함을 금하지 못했다. 최민희 패널이 <100분토론>에 참여한 이유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방패나 대변인임을 자처함으로써 자신을 당에서 부각시키기 위한 것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최민희 패널 같은 사람을 조국임명과 관련한 주제의 토론에서 토론자로 초청하면 애당초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PD는 알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토론의 내용에 있어서도 특정 정당의 전략이나 전술이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 등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담으로 나눌만한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100분토론>에서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패널을 선정하고자 했다면, 전 현직 국회의원들은 배제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특히 차기 총선에 참여하길 원하는 전 국회의원들을 패널로 참여시켜 <100분토론>을 자신을 부각시킬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일은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2019년 9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박진수 위원

◆ <100분토론>(8/27)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슈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양 측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워낙 첨예한 이슈라, <100분토론>에서는 과연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다 성숙되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유익한 <100분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나 기대와는 다르게 후반부로 갈수록 토론의 양상은 가히 점입가경이었다. 토론의 원래 목적과 취지는 잊혀진 채, 양측의 논리 없는 대립과 가짜뉴스로 인한 혼탁 양상은 ‘토론’이란 제목의 프로그램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다. 사회자의 역할도 불분명하고, 타이밍 상으로도 늦었으며, 초등학생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토론 매너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해당 이슈에 대한 토론자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당과 야당을 꼭 섭외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 다소 뻔해 보이는 토론 양상을 충분히 예상하셨음에도 이와 같은 패널 구성을 한 이유가 궁금하다.

더욱이, 진행자의 토론 진행역량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리뷰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8.31(토) KBS <심야토론>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쟁점 사항을 주제로 <100분토론>과 같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양측 각 2명씩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진행자이신 정관용 교수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는 양측의 산만한 논리와 토론 전개에 흐름을 잡아주는데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본다. 같은 주제로 <100분토론>과 <심야토론>을 비교해서 시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도 생각한다. 토론장 바깥에서부터, 팩트 구분도, 쟁점 이슈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다.

한편, 801~840회 총 40회 분량의 주제를 분야별로 나눠보았더니, 경제관련 주제는 6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8월에 드렸던 의견에 이어서, 경제 이슈의 비중을 보다 늘려달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의 가장 토대가 되는 필수 전제이겠지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힘들어 하고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 분야 이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으면 좋겠다.

◆ <스포츠 다이어리>(8/26)

진행하는 여자 아나운서의 복장이 사실 일부 시청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본다. 한때 기상캐스터와 스포츠캐스터의 노출복장이 경쟁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꽤 오랜만에 이렇게 몸매를 강조하는 복장을 TV를 통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는 이런 노출을 통한 시청률 확보는 MBC에서는 보지 않았으면 한다.

◆ <공부가 머니?>(8/29)

목요일 저녁 시간대 새로운 프로그램을 관심 갖고 시청하게 되었다.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제안되었던 아이템은 자녀교육이 주제여서 더욱 기대를 가지고 시청에 임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좀처럼 보기 힘든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흥미롭게 고민할 지점들을 잘 던져준 것 같다. 물론, 아직 자녀가 없는 입장에서 시청한 소감이 자녀교육을 실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의 입장과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이 자녀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이 자녀들의 역량개발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구체적인 검사 수치와 실증 사례를 가지고 찬찬히 잘 풀어내고 있는 점은 감탄스러웠다. 다음날, 주변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선후배 들을 통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분명 좋은 취지의 좋은 콘텐츠로 시작한 프로그램인 만큼, 그 목적을 충분히 살리고 원래의 취지를 잘 유지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게는 반성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특히, 시청자와의 공감을 가장 중시하며, 일부 연예인이나 일부 계층의 배후를 고민만을 다루지 않기를 바란다(담당 분과는 아니지만, 시청하면서 꼭 의견을 드리고 싶어, 보태었습니다)

◆ [의견제안]

- '주52시간 근무가 바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의견으로 드렸던 경제 이슈와도 관련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일상 속 루틴을 바꾸며 소비지형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주 52시간제 근무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인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대해 살펴보는 특집기획이나 기존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활용한 편성을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다양한 연령대나 직업별 근무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실감하고 있으며, 퇴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 나갈 전망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과정이 되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도 관심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리포트를 함께 첨부 한다(주52시간 근무에 따른 1934 라이프스타일 조사: <https://www.20slab.org/archives/35061>).

II. 조사 결과 요약

근무시간 관리 제도가 있는 기업은 회식·회의·휴식의 빈도와 시간이 감소한 비율이 비교적 높아 근무시간 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음.

- 주 52시간제를 위해 근무시간 관리 제도를 시행중인 기업은 58.5%로 '출퇴근 시간 정보 수집(23.2%)'을 시행중인 곳이 가장 많음.
- 근무시간 관리 제도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근무 환경에서 회식, 회의, 휴식의 시간과 보고 체계가 감소한 비율이 높아 근무시간 관리 제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근무시간 관리를 위한 제도* 시행 여부
[Base: 전체, n=600, 단위: %]

시행 중인 제도 없음 41.5%

제도 시행 중 58.5%

*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제한되면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근무시간 관리 제도를 도입/시행 중에 있음.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Top3
[Base: 근무시간 관리 제도가 있는 기업 총사자, n=351, 복수, 단위: %]

- 출퇴근 시간 정보 수집 39.6%
- 출퇴근 시간 단력 조정 36.2%
- 근무시간/근무일 단력 조정 29.9%

1년 전 대비 근무 환경에서의 변화
[Base: 전체, n=600, 단위: %]

감소 비율 (Bottom2)	근무시간 관리 제도가 있는 기업 (n=351)	근무시간 관리 제도가 없는 기업 (n=249)
회식 빈도/시간	35.9	20.1
회의 빈도/시간	24.8	12.9
휴식 빈도/시간	19.1	13.7
보고 체계/단계	15.4	8.4

II. 조사 결과 요약

대기업 종사자는 1년 전 대비 여가 시간이 비교적 증가하여, 주 52시간제가 중소·중견 기업 까지 확대 시행되면 퇴근 후 삶(여가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에 비해 1년 전 대비 여가 시간이 증가함.
- 향후 시도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휴식(31.5%)'과 '스포츠/피트니스(31.3%)'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주 52시간제로 1년 후 퇴근 후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이 41.5%, 사회 생산성에 대한 긍정 전망이 38.0%로 나타남.

1년 전 대비 여가 시간에서의 변화
[Base: 전체, n=600, 단위: %]

증가 비율 (Top2)	대기업 (n=100)	중소·중견기업 (n=500)
다양한 취미 활동	48.0	24.2
가족과의 시간	47.0	23.0
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40.0	25.4
친구/연인과 보내는 시간	38.0	25.0

향후 시도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 Top3
[Base: 전체, n=600, 복수, 단위: %]

- 휴식(명상, 명태리기 등) 31.5%
- 스포츠/피트니스 31.3%
- 학습(어학, 프로그래밍 등) 24.7%

향후 주 52시간제로 인한 전망 (Top2)
[Base: 전체, n=600, 단위: %]

“ 주 52시간제로 인한 1년 후 ”

- 나의 퇴근 후 삶이 나아질 것이다 41.5%
- 나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37.5%
-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38.0%

20대연구소 연구리포트 2019-5 |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1934 라이프스타일 조사 | 8

III. 조사 결과 상세

3. 주 52시간제에 대한 전망 | 3) 주 52시간제로 인한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에 대한 인식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하며, 특히 홈족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

- 홈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62.3%로 가장 높으며, 비교적 여성(66.3%)과 30대(64.0%)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셀러던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절반 가량으로 비교적 여성(59.3%)과 대기업(57.0%)의 응답 비율이 높음.
- N잡러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은 45.5%이며, 부정 인식 비율에 있어서 여성이 26.0%로 가장 낮은 비율은 보임.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에 대한 인식

■ 긍정응답(Top2, 그렇다) □ 중도응답 □ 부정응답(Bottom2, 아니다) [Base: 전체, n=600, 단위: %, 점(5점척도)]

	전체	성별		세대별(안 나이 기준)		직장규모별		근속기간별			근무시간 관리 제도 유무		
		남성	여성	20대	30대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제도 있음	제도 없음	
(Base)	(600)	(300)	(300)	(194)	(406)	(100)	(500)	(258)	(169)	(173)	(351)	(249)	
홈족 집 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 (홈카페, 홈트레이닝 등)을 하는 사람들	평균 3.66 62.3	긍정 58.3 중도 28.0 부정 13.7	66.3 25.3 8.3	58.8 29.4 11.9	64.0 25.4 10.6	62.0 27.0 11.0	62.4 26.6 11.0	60.5 28.3 11.2	64.5 24.3 11.2	63.0 26.6 10.4	64.1 24.2 11.7	59.8 30.1 10.0	
	셀러던트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들	평균 3.41 50.5	긍정 41.7 중도 43.3 부정 15.0	59.3 27.0 13.7	49.0 35.1 16.0	51.2 35.2 13.5	57.0 31.0 12.0	49.2 36.0 14.8	47.7 37.6 14.7	54.4 30.8 14.8	50.9 35.8 13.3	53.3 34.5 12.3	46.6 36.1 17.3
		N잡러 두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배달업, SNS 1인 마켓 등)	평균 3.27 45.5	긍정 45.7 중도 37.3 부정 17.0	45.3 28.7 26.0	46.9 34.0 19.1	44.8 32.5 22.7	49.0 32.0 19.0	44.8 33.2 22.0	44.2 35.3 20.5	47.9 31.4 20.7	45.1 31.2 23.7	43.9 34.2 21.9

2019년 9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이 상 길 위원

◆ <탐나는TV>(8/31)

<탐나는TV>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10분부터 50분간 MBC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MBC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방송이다. 젊은 패널들이 객관적으로 예리하게 지적하는 부분을 보면 시원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런데 지난 8월31일자 프로그램에서는 옥의 티라고 할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그날의 프로그램 주요 주제 중에 ‘시청자 Pick’에서 선정된 <라디오스타> <선을 넘는 녀석들 편>에 대한 시청의견이었는데 패널들의 의견이 다른 때보다 지나친 표현이 있었고, 화면처리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패널 중 여성위원인 김선영이 <라디오스타>의 게스트인 이동우와 조나단의 재치 있는 발언을 칭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장영란에 대해서는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다른 사람이 신선한 의미를 주는 이야기를 함에 비해 장영란은 성형과 아이라인 이야기 밖에 못한다. 외모에 편중된 얘기로 불편하다”는 직설적 표현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민망한 느낌을 갖게 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는 게스트가 제한되어 있어서 자세히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대상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시청자들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장영란’이라는 이름을 노골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개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도 아닌데 구태여 비판 의견을 제시하는 김선영 위원 배경에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표시로 불꽃 화염을 그려 넣는 것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승환 패널의 경우도 “원흠과 장영란은 폭주기관차행”이라고 비평한 것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8월31일자 <탐나는TV>의 구성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시청자 Pick’-<MBC 관련 키워드>, 둘째는 ‘도마 위의 TV’-<황금정원>, 세 번째가 MBC시청자위원회 의견이었다. 그런데 50분 정도 되는 프로그램 중에 ‘도마 위의 TV’에 대한 내용은 약 25분 이상을 할애함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프로그램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시간이 13분 정도로 반 이상을 프로그램 내용에 사용한 느낌이다. 나머지 약 12분 동안에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지만 그중에서 후반부에 각 패널 마다 인상 깊은 출연진을 일일이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결과적으로 <탐나는 TV>의 많은 부분이 의도와 다르게 자체 프로그램의 홍보에 할애 된

것 같은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8월에 진행된 MBC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요약하여 본 방송에 내보낸 것은 적절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MBC가 공영방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을 정기적이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MBC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 <언니네 쌀롱>(9/5)

<언니네 쌀롱>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9월5일(목)과 9월12일(목)에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부터 본격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출연진들도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져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단골로 출연하여 시청자를 식상하게 했던 출연진들이 아니어서 좋았다. 특히 항상 맑고 청순해보이지만 스타일이 고정된 이미지였던 손연재 전 체조선수의 스타일을 의상, 화장, 헤어로 아름답게 변신시키는 내용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내는 프로그램이라 할 만 하였다. 또한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과정동안 전문가 출연진들이 본인들의 전문성을 드러내며 권고해주는 내용들은 시청자들에게도 충분히 관심을 유발시켰다. 게다가 프로그램의 내용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인턴과 개그맨들을 동원시키는 것도 잘 기획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칫 간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미리 지적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인위적으로 주기 위해 개그맨들이 유머와 제스처를 지나치게 표현하여 프로그램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게스트를 변신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신선한 정보와 게스트의 스타일 변화에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개그맨들이 등장하여 말과 제스처로 시청자 몰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생각한다. 개그맨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길 바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게스트를 잘 섭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주 시청자는 젊은 여성이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유명인 게스트들을 잘 선별하여 섭외해야 한다. 때로는 일반 시청자들도 게스트로 초대하여 시청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자신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예로서 <언니네 쌀롱> 홈페이지 댓글 기사에 프로그램 방영 첫 회를 전후해서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자신을 초대하길 원하는 표현이 많은데 이러한 심리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9년 9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전 경 란 위 원

◆ <언니네 쌀롱>

- 1~2회(9.5/9.12)

그동안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은 성형, 화장술, 스타일링을 비롯한 외모 관리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왔다. 멋진 외모가 역량이나 경쟁력으로까지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온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스타들의 메이크오버를 주요 내용으로 예고한 <언니네 쌀롱>이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을 여성성이나 여자다움과 직결시키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내심 우려가 되었다. 게다가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여성 진행자의 캐릭터 특징이나 구사하는 화법 등을 고려해볼 때 그러한 우려가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

아름다워 보이고자 하는 욕망, 멋진 외모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바람을 보여주고, 그것을 성취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지탄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외모를 개선해주는 행위를 불만족 상태였던 마음을 심리적으로 치료해주는 것으로 단순화해서 본다면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은 오히려 순기능을 지닌 권장할만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심리적 부담을 주는 외모를 옷차림이나 화장술, 헤어 스타일링을 통해 변형시키는 과정이 그러한 고민거리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적인 행위(empowerment)로,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메이크오버 과정을 주체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니네 쌀롱>은 여성출연자를 중심으로 아름다워 보이고자 외모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불문하고 스타라는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과 조금 달라 보인다. 리듬체조 은퇴 후 운동복 스타일에서 벗어나 그 나이대의 성인여성으로서의 외모를 갖추고 싶어 하는 출연자, 쓸 만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외모연출을 원하는 전문직 남성 출연자, 어린 딸에게 또래 친구들의 아빠만큼 젊어 보이기를 희망하는 아버지의 사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니네 쌀롱>은 잘 연출된 외모가 비즈니스는 물론 사회생활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또 다른 버전의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들여 손질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민낯에 가까울 정도의 가벼운 화장, 평범한 옷차림은 “러블리한 컬의 히피폼 헤어”, “입체감을 살린 음영 메이크업”, “루즈한 니트와 샤스커트를 매치한 프렌치

시크 스타일”로 표현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진행자를 비롯한 패널들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 잘 연출된 출연자의 바뀐 외모에 찬사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사는 단지 여성 출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남성 출연자의 사연으로 구성된 2회에서 전문가가 바뀌준 세련된 스타일 이전의 모습은 “아무거나 주워 입을 룩”으로 폄하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늙어 보이는 얼굴은 “10년 젊어 보이는 동안 헤어”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정의된다.

특히 메이크오버 이후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외모의 기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마지막에 베일에 싸인 모습으로 등장하여 개선된 외모를 최종적으로 공개하고, 그 새로운 외모에 대해 진행자들이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는 전형적인 연출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

<언니네 쌀롱>이 “스타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스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며 이너뷰티까지 책임지는 신개념 메이크오버 토크쇼”를 표방하지만 결국 내면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전제되거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극복되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심하게 말해 제대로 아닌 척 하지도 못하면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획의 프로그램을 “굳이” MBC에서 공들여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질문하고 싶다. 패션과 외모 연출에 대한 유용한 팁을 얻을 수도 있고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너무 정색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언니네 쌀롱>은 그동안 논의해온 MBC다운 예능 혹은 MBC의 걸을 살린 예능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종영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족일 수 있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서 <언니네 쌀롱>의 구성과 제작측면의 아쉬움도 언급할 수 있겠다. 프로그램의 출연진을 대표, 매니저, 시술전문가, 인턴, 손님으로 구성했다면 고정 출연자들이 각각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한 역할활동이 토크를 비롯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3명의 시술전문가를 제외하고 누구도 부여된 역할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다. 각자의 역할이나 입장에 기반 하기보다는 출연자의 캐릭터 특징이 오히려 부각되면서 대화가 산만해지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토크쇼가 될 만큼 구성의 짜임새를 갖추기 어려워 보였다.

2019년 9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정 석 희 위원

◆ <같이 편딩>, <공부가 머니?>

- '지상파 방송의 가치에 합당 한가'

출연자들 간의 릴레이로 이루어지는 <놀면 뭐하니?>와 클라우드 편딩을 예능으로 끌어 온 <같이 편딩>, 김태호 PD 표 주말 예능 프로그램 두 편이 순항 중이다. <놀면 뭐하니?>는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초반의 우려를 던지고 '유프래쉬', '대한민국 라이브'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시류와 맞물려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같이 편딩> '유준상의 국기함'도 시청률과는 별개로 일만 퍼센트를 훌쩍 넘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당당히 얻어냈다. 9월15일 방송 이후 재개된 3차 편딩에 접속했더니 대기자가 4천 명이 넘는다는 메시지가 뜬다. 이젠 시청률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같이 편딩>이 입증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유인나의 오디오북'도 함께 하는 작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한 몫 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MBC 예능, 오랜만이다.

<같이 편딩> 9월1일 3회 방송, 독립투사들이 드셨던 음식을 재연한 익선동 독립 요리집을 찾아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김치찌개를 비롯한 당시의 식단을 소개하고 독립투사들의 뜻을 다시금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3회도 같은 장소를 찾았다. 역시 장소 스케치와 메뉴소개가 이어졌다. 왜 굳이 한시적 운영이어서 가볼 수도 없는 장소를 두 방송이 같은 날 소개했는지. 프로그램 사이의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

방송이 본래의 기획 의도에서 벗어나 부작용을 낳을 때가 있다. 바라던 며느리들의 처우 개선과 자각 대신에 시어머니들만 집중 포화를 받고 끝난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가 그 좋은 예다. 아쉽게도 파일럿 2부작 <공부가 머니?>도 같은 경우다. JTBC <스카이 캐슬>이 그랬듯이 '교육비는 반으로 줄이고, 교육효과는 배 이상 높이는 에듀 버라이어티 관찰 예능'이라는 기획의도와 달리 방송 이후 사교육과 입시 컨설턴트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드높아졌고 매회 출연자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입도마에 시달려야 했다. 누굴 위한 출연인지 모를 일이다. 겉으로는 입시 전쟁에 휘말린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서울대, 하버드를 강조하며 나를 따르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외치는 컨설턴트들. 말이 좋아 교육 컨설턴트지 실은 일명 '폐지엄마'들이 아닌가. 그간 시청률로 정규여부를 가늠해온 MBC가 어떤 결정을 할지, 만약 정규편성이 된다면 기존 포맷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궁금하다.

<같이 편딩>이 지상파 방송의 가치에 합당하다면 <공부가 머니?>는 지상파 방송의 가치에 역행한다 하겠다.

2019년 9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윤 여 진 위원

◆ <김종배의 시선집중>(9/14)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은 출근 시간 시민들에게 세상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유사한 타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과의 경쟁에서 청취자들이 채널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김종배 씨는 과거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뉴스브리핑을 오랫동안 담당했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온 느낌일 것이다. 또한 김종배 씨는 비슷한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를 진행해 왔기에 안정감 있는 진행과 함께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갈 것인가는 제작진이 항상 고민할 지점으로 보인다.

아침 시사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슈의 인물들과의 인터뷰가 될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이기에 전화인터뷰 뿐 아니라 스튜디오에 누가 나와서 사회자와 어떻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로봇태권브이 형상을 만들겠다는 지자체 때문에 출연한 예산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의 인터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지난 명절기간에는 서해성 작가가 우리의 상장례문화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고 청취자들도 새삼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9월 14일 명절연휴를 마치고 첫 출근길은 고향에서 나눈 이야기, 며칠 동안 이슈가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국장관부인의 하드디스크 교체논란에 대해 김기창 고려대 교수의 인터뷰는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보도한 대부분의 언론과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 조 장관의 부인이 너무도 허술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증거인멸이 아닌 자기방어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은 생각해 볼 부분이었다. 검찰의 수사와 함께 언론보도의 문제는 검찰이 재판 전의 수사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 죄가 언론과 검찰의 오랜 커넥션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국민들에게 의혹이 아직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개선방안을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김기창 교수와의 인터뷰는 시간 때문인지 검찰의 문제만 얘기를 하고 끝나게 되어 아쉬웠다.

송기호 변호사와 우리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인터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현실의 문제 즉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중소기업에 타격 등을 우려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자칫 감정으로 흘러갈 부분을 잘 정리해 주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이 문제의 시작은 침략기 일본의 인권침해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회복해야 하며, 국가 간 분쟁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보아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보여 졌다.

마지막으로 추석민심에 대해 배중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의 인터뷰는 이슈와 함께 연관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는지 알 수 있는 인터뷰였다. 보수매체가 과도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매체의 움직임도 보였다. 시민들은 뉴스보도와 SNS를 통해 이슈를 접하지만 이슈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론을 만들기도 한다. 이번 추석민심에 대해서는 김치, 감기, 치킨보다 조국이 더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과도한 현상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도 보여 졌다.

2019년 9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홍성재 위원

◆ <언니네 살롱>

- '창업의 관점에서 본 언니네 살롱' [1회/2회]

[프라이빗 스타일 체인지 살롱의 등장]

MBC는 스타의 의뢰를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프라이빗한 살롱에 모여 스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변신시켜주는 신개념 메이크 오버 토크쇼 <언니네 살롱>을 오픈했다. 이에 본인은 창업의 관점에서 <언니네 살롱>을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의 관점에서 본 방송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예능이 실제로 스타일링을 새롭게 제안하는 가치를 두고 있기에 돈을 주고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시청자들도 들 때, 콘텐츠가 진정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다. 우선 <언니네 살롱>이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아래와 같이 캔버스에 담았다.

The Business Model Canvas [언니네 살롱]

핵심 파트너 -명품 패션 기업 -뷰티 제품 기업 -포토그래퍼	핵심 활동 -상담 -스타일링 제안 -마무리 촬영 핵심 자원 각 분야 전문가 -헤어 -패션스타일링 -메이크업	가치 제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스타일링 변신 제안	고객 관계 -프라이빗 고객 초청 -VIP 고객 대응 채널 -살롱에서 서비스	고객 세그먼트 자신의 스타일링을 찾고자 하는 스타
비용 구조 -각 분야의 전문가 인건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의상 대여료 -메이크업 & 헤어 제품 -건물 임대료		수익원 -고객 서비스 이용료		

<언니네 샵롱>의 장점은 실제 비즈니스를 해도 될 만큼의 전문가 군의 확보와 스타라는 VIP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창업의 관점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The Business Model Canvas [언니네 샵롱]

핵심 파트너 -명품 패션 기업 -뷰티 제품 기업 -포토그래퍼	핵심 활동 *현재 총괄적인 상담 기능이 약함 -스타일링 제안 -마무리 촬영 핵심 자원 각 분야 전문가 -헤어 -패션스타일링 -메이크업	가치 제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스타일링 변신 제안 *CEO는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지 의문 -> CEO가 전체 디렉팅을 할 필요성이 있음	고객 관계 -프라이빗 고객 초청 -VIP 고객 대응 채널 -샵롱에서 서비스 *사전 방문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 파악 필요	고객 세그먼트 자신의 스타일링을 찾고자 하는 스타 *스타들 중 새로운 스타일을 고민하는 니즈는 있다고 판단, 이톤이 새로운 출발, 도약, 성장, 극복 등 핵심 키워드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비용 구조 -각 분야의 전문가 인건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인원 배치로 혼선 야기) -의상 대여료 -메이크업 & 헤어 제품 -건물 임대료		수익원 -고객 서비스 이용료		

1/2화를 보고 난 후에 창업의 관점에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반영하였다. 대략적인 리뷰를 하자면 대표로 등장하는 한예슬 씨의 역할이 아쉬웠다. 지금은 적극적인 주요 게스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CEO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전체 디렉팅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프라이빗 서비스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고객을 세심하게 챙기면서 불편함과 혼선을 줄이는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샵롱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인원 배치로 각 캐릭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보다는 억지로 일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으로 카메라에 자주 비춰졌다. 1화에서 2화로 넘어가면서 등장한 스타들은 이전 보다 스타일링에 대한 필요성도 돋보였고, 또 변화 후의 모습이 전문가의 촬영으로 좋은 사진으로 기록되는 점이 좋았다. 본 방송의 향후 편성여부는 알 수 없지만, 예능에서 질 좋은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은 많이 볼 수 있었다.